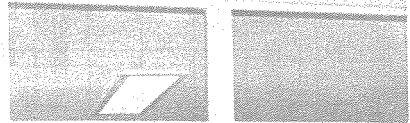


모든 檢査事業은 內實이 먼저

전라남도 지부순례 ①



한국건강 관리협회 부속의원



기협 전협의

25시

1965년 설립된 한국 기생충박
멸협회의 및 건강관리협회 전
라남도지부의 발전상을 지면
을 통해 소개한다.

생화학분석실

가. 行政区域

인 구 수			행 정 구 역									
계	남	여	시	군	출장소	구청	읍	면	리·동	자연부락	도 서	
											유	무
3,861,565	1,937,893	1,923,672	5	22	1	3	29	207	6,548	8,965	342	1,764

나. 학교현황

학교별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교직원수	비 고
계	1,078,882	1,735	23,366	31,448	
국민학교	530,954	1,224	14,408	16,152	
중 학 교	325,515	314	5,096	7,799	
고등학교	222,413	197	3,862	7,497	

다. 사업대상

① 일반사업

대 상	계획인원	구분	비 고
계	1,878,882	년간	(2,957,764명)
학 생	1,078,882	2 회	
지역주민	730,000	1 회	
사 업 장	70,000	1 회	

② 특수사업

구 분	계획인원	비 고
계	89,000	
간흡충	73,000	국고 보조금 사업
폐흡충	16,000	도비 보조금 사업

라. 행정여건

①전국의 ½에 해당되는 유·무인 도서가 있고 12,225km²의 넓은 면적에 거의 하루를 가야하는 출장지역이 많다.

②특별한 소득이 없고 지역별로 낮은

生活水準이며 산간오지도 많아 지역간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있음.

그간의 事業遂行成果

먼저 20여년간 수행했던 사업의 성과란 현저히 감소된 각종 질환별 감염률이 입증해 주고 있다. 실로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의 칭찬도 받고 싶다. 사실 처음 시작단계에 그 누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탐탁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겠는가마는 목적하는 바론 끊임없이 전진하였고 때로는 언덕과 냇물 그리고 진흙길도 걸어야 했다. 먼곳을 향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수없듯이 고난속에 인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먼곳에 눈을 부릅뜨고 고생을 극복했을 것이다.

전남도민의 기생충 감염률은 아직도 계층간 지역간의 차이가 많다. 일정수준의 소득자가 조금 나아진 자기의 生活환

경을 더 못한 남이 없는듯 전부가 기생충이 없는듯 과소평가해 버리는 성급한 思考力을 行動에 옮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좀더 論理的이고 科學的인 이야기를 들려 주었을때엔 얼른 行動을 바꾸는 경향도 있어 오히려 현시점의 단계가 홍보에 역점을 뒤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소외당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로지 기생충 감염률이 저하 될때까지 쌓아올린 일들을 잘 관리해야 될것이며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면서도 좀더 좋은 方向으로 가기 위해서 병행하고 있는 건강관리 사업분야를 소개 하고저 한다. 이제 까지 기생충 관리의 단순 고유 업무에 보다 세련된 업무수행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內実에 위주하고 있다.

內実측면에서 1) 기존건물 공간 최대활용

- 2) technic向上
- 3) 검사 장비 확보
- 4) 의료기관으로서의 면모 갖추기
- 5) 人力적정배치

1. 광범위한 分野를 1차 임상학적으로 ①생화학 ②혈액학 ③혈청학 ④세포학 ⑤요분석 ⑥기생충질환 ⑦검사결과 전산처리 과정으로 집약하여 검사실을 꾸며져야하고

2. 유능한 技術人力이 必要함은 檢査 기능에 절대성을 갖게 할것이고

3. 건강검사에 검사장비는 상대와 싸울때 필요로한 필수품에 manual에서

Auto化해서 과정을 비유해 보면 될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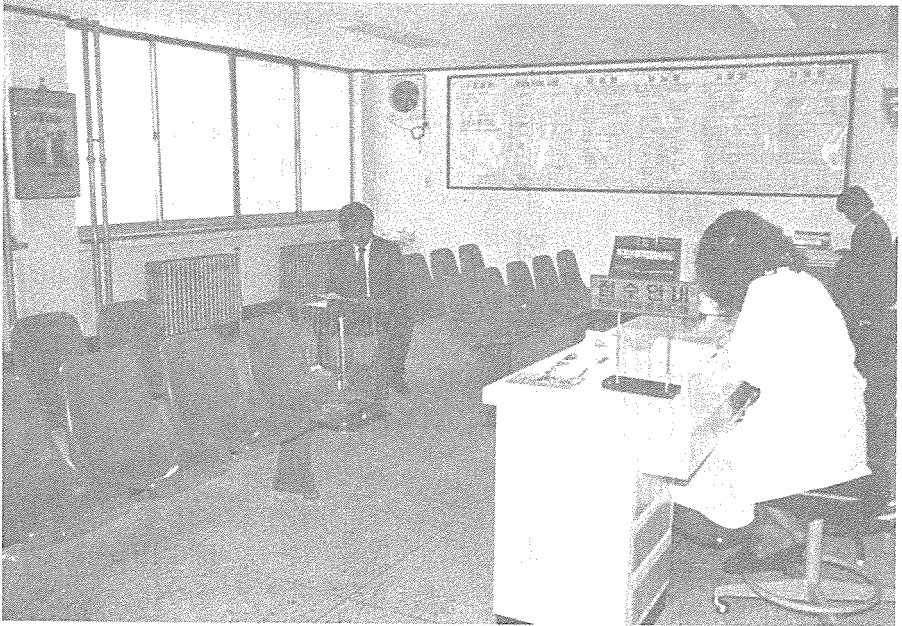
4. 의료行爲의 집행에 제반기준을 준수해 나간다면 검사기관으로서 보다 한층 높은 면모가 갖추어질 것이고

5.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화합을 정점으로한 일들은 순리에 맞는 일들만이 수행 될것으로 보고 分野別로 人力 배치에 가급적 순환 보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단없는 검사의 진행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

기생충 관리 사업에 건강관리 사업을 함께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외로움을 덜어주게 되었을 것으로 보며 종사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자들이 보는 견해도 인식이 새로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업무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무척 힘든일이 아닐 수 없음을 매사가 어렵지만 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

남의 건강을 체크해서 비 건강인을 찾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바람된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저렴한 숫자에 심지어 집단층 요청검사는 검진 차량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번검사를 받아보신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에는 이제 또한번 자신을 갖고 자기건강에 소홀하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고 이쯤됐으니까 검사비 지출은 2년후로 미루는 분들도 간혹 있는것 같으나 “종합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자기건강을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습관화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본다.



전남支部가 수행하는 事業들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은 먼저 도(道)보건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일 것이다.

도(道) 당국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복지사회가 되기 위해선 바로 우리協會가 하고 있는 事業들이어야 함을 관심있게 관리지원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업에 지원 투자해준 덕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하였고 전직원은 좋은 환경속에서 매우 만족한 근무를 할수 있어 직장인의 긍지와 자부심은 대단 하리라

고 생각된다. 또한 얼마전 부속의원 원장에 全南의대 소아과 과장에 손철 박사께서 새로운 人生의 삶을 위한 유치원생기분으로 마냥 즐겁다 하시며 찾아오신 퇴원자의 건강 상담에 여념이 없는데 필연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事業은 복지 사회를 앞당겨 실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도 전직원은 맡은바 임무수행에 바쁘기만 하다.

<필자=이홍량 사무국장>

기생충계몽포어

기생충 없는 국민
올림픽에 승리한다.

■ 한국기생충박멸협회